

한의대 수업 복귀

한약학과 졸업자에 한해 한약조제권 주어질 듯

지난해 5월 한약 조제 시험 무효화를 주장하며 수업 거부에 들어갔던 우리학교 한의대가 수업거부 9개월만에 제적생을 제외한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다.

그간 연속 2회 유급시 제적학칙에 따른 제적 위기와 이들의 구제를 위한 학칙변경(연속 3회 유급시 제적), 미등록자 80여명 제적 사태 등 많은 난관을 겪고 지난해 12월 변경된 학칙에 따라라도 제적이 불가피 하자 최종 등록시한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휴학했던 한의

대는 "1년반동안의 휴학기간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너무 지쳤고 수업복귀가 제적생들의 재입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등록하게 되었다"며 "간시간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만큼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약사법 개정이후 시작된 한약 분쟁은 95년 한약 조제 약사의 처방 권한으로 96년 한조시 문제로 세 번의 위기를 넘긴 뒤 별다른 해결책을 보지 못한 채 4년째 맞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새약사법 시행령발표에 따라 앞으로 한약학 졸업자에게만 한약조제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최수정 기자)

보건소 전문의 진료

수원캠퍼스 보건소는 전문의 진료를 실시한다.

임시직 4명 정식직원 채용

수원캠퍼스 총무과는 지난 1일 사무보조 임시직원 11명 중 4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으로 계약직 직원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6명 뽑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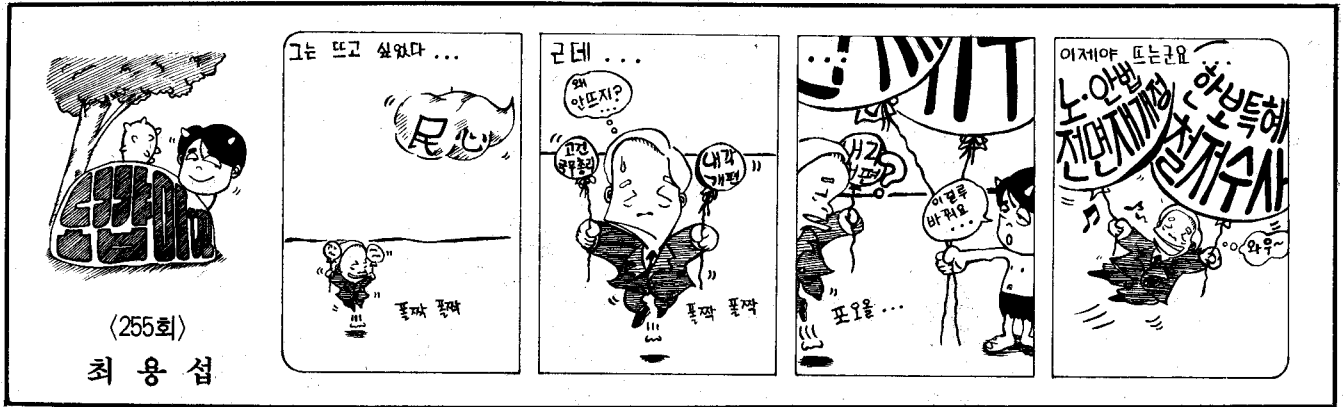
사회교육원 강좌 개설

수원캠퍼스 사회교육원은 '97 학년도 강좌를 오는 17일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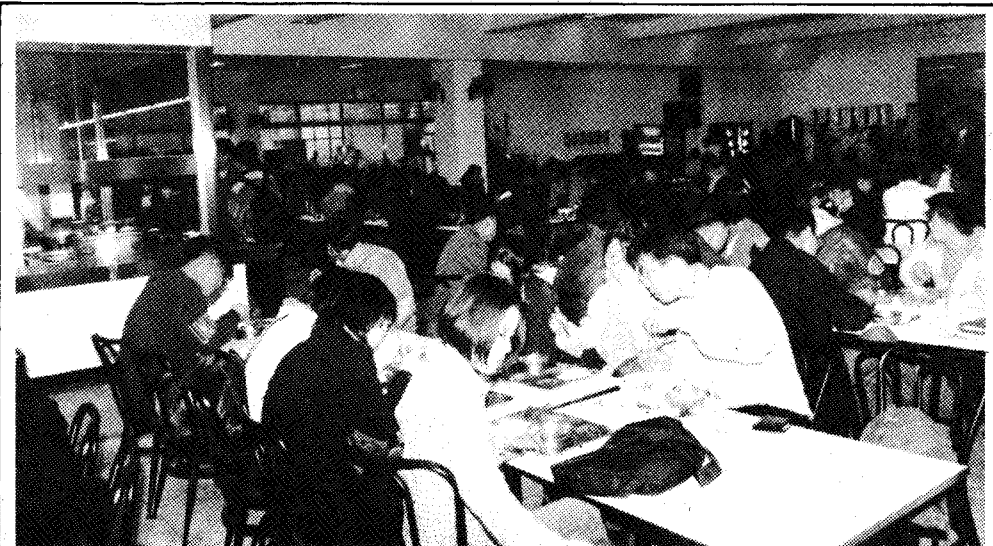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체과대 1층 사회교육원 교학부에서 실시하며 원서대는 1천원이다.

이번 강좌에는 텍스트일디자인과 도예교실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을 선보이며 본교 재학생에 한해 10% 수강료 특별할인 혜택을 시행한다.

또한 식당측에서는 퇴식구 위치 및 이



(255회) 최용섭



새학기, 새얼굴, 새식당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이 개강과 함께 새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번공사로 인해 변화된 식당의 모습을 살펴보면 1백석의 교직원 식당 신설, 스텝코너 및 매점 공간 확대, 냉동·냉장실 증축, 부식창고 신설, 조명시설 개선 등이 있다.

또한 식당측에서는 퇴식구 위치 및 이

용상의 변경 등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 바닥에 안내화살표를 부착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공사는 기온강하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아직 마무리 정리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취재부)

27일 인복위원장 선거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는 제9대 인복위원장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인복위원장 후보는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 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입후보자 등록원, 재학증명서, 20인 이상의 추천서명서, 명함판 사진, 선거공약 및 이력서를 오는 15일 오후까지 인복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일은 오는 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이다.

언론고시반 신입실원 모집

언론고시반은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언론고시반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원서 접수시 언론고시반에서 배우하는 입실지원서,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자에 한해서는 TOEIC공인 증명서도 받는다.

시험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정경대 306호에서 있을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영어(TOEIC)와 논문이다.

언어교육원 어학강좌

수원캠퍼스 언어교육원에서는 오는 17일 학생과 일반인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어학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5월 9일까지 8주간 시행하게되는 이번 강좌는 아침반(오전 7시50분~8시50분), 낮반(오전 11시30분~12시30분), 저녁반(오후 6시~8시20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영어회화, TOEIC·TOEFL, 일본어, 중국어, JPT 일본어능력시험 등이 있다.

가격은 영어회화 13만원, TOEIC·TOEFL 6만원, 그 밖의 외국어는 6만원에서 9만원까지로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언어교육연구원(외국어대관내 211호)에서 받는다.

한편 언어교육원측 관계자는 "학생과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아침반, 낮반, 저녁반으로 분반하였다"라며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외국어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어학강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정보대학원장 이계탁(사회대 행정)교수

"학생확보 위해 총동문회 결성 시급"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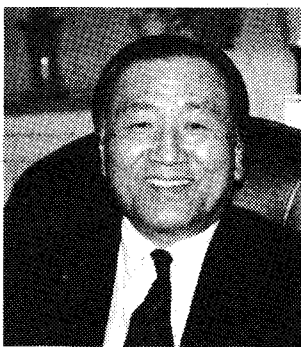
덕성여대 총장으로 부임한 김용래 교수 후임으로 지난 1일 산업정보대학원장(산정원)에 임명된 이계탁(사회대 행정)교수를 만나 보았다.

산업정보대학원장이 된 소감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무척 당황스러웠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교수로써 전 원장 못지 않게 산정원을 이끌어 나가겠다.

산정원이란 어떤곳인가.

학문을 갖고 닦는 곳이 일반대학원이라 한다면 졸업한 사람들의 재교육을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특히 대학원이다. 물론 산정원도 우리학교내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이며 18개학과를 가지고 있는 수원캠퍼스의 유일한 특수대학원이다.



최고경영자과정은 있다고 하던데.

최고경영자과정이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권위가 있는 저명인사들을 학력에 관계없이 모집해 1년간의 교육을 하는 곳으로 제2의 경제동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는 어떠한가.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학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보 개선과 방문 유치, 총동문회 결성을 조속히 하여 선후

배간의 연결을 활성화 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피교육자 유치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한 강의를 있다면.

3월부터 경기도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과정은 우리학교가 사회화원 차원으로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복지 전공학과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이 학과는 현 사회가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가장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야로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발급되며 취업이 용이하고 학생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진원 기자)

김봉임 교수 무죄 판결 송명섭 교수 수업, 수강신청 거부

지난 95년 음대 전임강사채용과정에서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되었던 김봉임(전 음대학장·성악과)교수가 '신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서초동 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결과 뇌물을 전달했던 김선주(작곡)교수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중간 전담책임이었던 권용진(작곡)교수는 증거불충분으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당검사는 김봉임 교수의 무죄선고에 대해 '뇌물 전달착과 수취착에 법집행이 공

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상태이다.

김교수 무죄판결에 대해 전 용구(기악 3) 음대학생회장은 "수감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부당함을 학내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작년 성희롱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명섭(미교)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교과 전공수업을 받아 미교과 학생들은 송교수 수업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전진호(미교 3) 미교과 학생회장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는 다음주에나 송교수 수업 수강신청거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시간제 학생 등록 '후끈'

1백77명 지원, 경쟁률 63대 1

고교졸업후 사회생활중인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실시된 시간제 등록 학생 모집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한 원서접수 결과 28명(서울 20명 수원8명) 모집에 1백77명이 지원, 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 중에는 목사와 수녀 등의 성직자도 포함돼 이채를 띠었다.

이에 서정석 입학관리처장은 "기대보다 많은 인원이 시험에 응시해 뿌듯하다"며 "내년부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등록학생을 받는 학부는 서울캠퍼스(이학부 5명,

지리학과 5명, 법학부 10명) 수원캠퍼스(러시아어학과 4명, 사회과학부 4명)의 야간학부들이며 1학기당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과정 개설

창업희망자 대출특전

산업정보대학원에서는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아래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중소기업 창업실습과정을 개설한다.

창업절차·사업계획등의 실무교육, 사례연구, 자기회사의 문제점 토론 등의 실질적인 교

육을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창업 기초(4주), 창업실무(7주), 창업실습(5주)과정으로 진행된다.

기간은 1기가 지난 4월부터 6월 17일까지, 2기는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공과대학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이 강좌는 모집마감인 지난 2월 14일까지 1백50명이 신청하여 모집인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확충하였다.

한편 이 과정을 수료한 창업희망자에게는 경기도로부터 7억원까지의 대출 특전이 주어진다.

연구비 내역 발표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96학년도 교외 연구비 내역을 발표했다. 총 1백 73개 지원과제에 대해 지원된 연구비 금액은 96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26억2천6백 81만원이며 교육부에서 4억5천 6백만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이 각각 약 3억4천4백만원과 2억1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전문가 삼성생명을 움직인다

"남북통일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하시오"

삼성생명의 상품개발전문가들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삼성생명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단순히 국내 제 1의 보험회사가 아닌, 종합금융회사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전문가들의 힘에 있습니다. 0.01%의 비율에 도전하는 Fund Manager, 보험계약을 심사하는 Underwriter, 적정보험료를 산정해 결산손익을 관리하는 계리전문인력과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삼성생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금융서비스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에 함께하는 전문가의 손길. 21세기 종합금융회사 삼성생명이 함께 합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